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璟 培

쌍둥이 兒童의 學級 配定에

관한 研究

A study of the classroom assignment for twins

2003年 8月

漢城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孫 榮 桂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璟 培

쌍둥이 兒童의 學級 配定에
관한 研究

A study of the classroom assignment for twins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8月

漢城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孫 榮 桂

孫榮桂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3年 8月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I. 緒 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3
3. 研究의 内容	4
4. 研究의 制限點	4
II. 理論的 背景	5
1. 쌍둥이 兒童의 特性	5
2. 쌍둥이 兒童의 教育	9
3. 學級 配定 方法	12
4. 쌍둥이 兒童의 學級 配定	29
5. 先行研究의 考察	32
III. 研究 方法	37
1. 調査 對象	37
2. 調査 道具	38

3. 資料 收集 節次	40
4. 資料 處理	40
IV. 研究 結果 및 解釋	41
1. 쌍둥이 兒童의 學級 配定 方式	41
2. 學級配定 現況에 대한 쌍둥이兒童 및 學父母들의 滿足度	43
3. 쌍둥이 兒童의 學級配定과 生活 適應	48
V. 要約 및 結論	53
1. 要約	53
2. 結論	56
3. 提言	57
參考文獻	58
附錄	63
Abstract	68

表 目 次

<표 1> 조사대상 쌍둥이 아동의 학년 및 성별 분포	37
<표 2> 조사대상 쌍둥이의 학부모 표본	38
<표 3> 쌍둥이 아동의 학년별 학급 배정 방식	41
<표 4> 쌍둥이 아동의 성별 학급 배정 방식	42
<표 5> 쌍둥이 아동의 난성(卵性)별 학급 배정 방식	43
<표 6> 현재 학급 배정에 대한 쌍둥이 아동의 만족도	44
<표 7> 현재 학급 배정에 대한 쌍둥이 학부모의 만족도	44
<표 8> 희망에 따라 학급 배정되었을 경우의 만족도	45
<표 9> 강제로 학급 배정되었을 경우의 만족도	46
<표 10> 학급배정 희망 당사자 분포	46
<표 11>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행복감과의 관계	48
<표 12> 쌍둥이 아동의 학급배정과 협동심과의 관계	48
<표 13> 쌍둥이 아동의 학급배정과 경쟁심과의 관계	49
<표 14>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의존심과의 관계	49
<표 15> 쌍둥이 아동의 학급배정에 따른 교우관계	50
<표 16>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부모로부터의 비교	51
<표 17>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교사로부터의 비교	51
<표 18>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친구로부터의 비교	52
<표 19> 쌍둥이 아동들이 비교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	53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쌍둥이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 학교생활, 교우관계 적응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 정책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쌍둥이 연구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쌍둥이 연구의 시조로 불리는 Francis Galton(1822-1911)으로부터 Segal과 Russell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쌍둥이 아동의 학교적응도 평가, 생물학적인 기초에 입각한 연구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서구 여러 나라와 교육환경 및 문화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므로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들을 한국 쌍둥이 아동들의 교육정책에 직접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교육자와 전문상담가 그리고 부모들에게 쌍둥이 아동들을 같은 반에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반에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과거에는 부모의 편의에 따라 쌍둥이들을 같은 반에 보내왔지만 최근에는 쌍둥이 형제간의 지나친 경쟁 혹은 의존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하여 다른 반에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Koch¹⁾는 이란성(二卵性) 쌍둥이보다 일란성(一卵性) 쌍둥이들의 사이가 더욱 가까우므로 일란성 쌍둥이 아동을 빠른 시기에 분리하는 것은

1) Koch, H(1966). 「Twins and twin relation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71.

쌍둥이 중 한 명 혹은 모두에게 특히 저학년일 때 교육적, 사회적 경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Koch의 발견은 학교정책에 좀처럼 반영되지 않았지만 쌍둥이의 난성(卵性)도 학급 배정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쌍둥이의 출생률 증가 및 일반인들의 쌍둥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급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쌍둥이가 희귀했기 때문에 좀 별나게 생각하고 신경쓰이게 했지만 최근에는 쌍둥이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평범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반에 배정할 이유는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란성(一卵性) 쌍둥이 아동을 같은 반에 배정할 경우에는 담임이나 같은 반 급우들에게 혼돈, 비교, 투사 등 불필요한 이야깃거리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 외에 쌍둥이 아동의 개인적인 요구 또한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므로 학급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전문가, 심리학자,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상황 분석과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학년, 성별(性別), 난성(卵性)에 따라 학령기 쌍둥이 아동을 어떻게 학급 배정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모색해 보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는 쌍둥이 아동 및 학부모들의 현재 학급 배정에 관한 의견과 쌍둥이들의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적응상황에 관해 조사, 분석하여 학급 배정 정책이 쌍둥이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심리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 성별, 난성 등의 변인을 고려할 때 쌍둥이 아동들의 학급 배정 방식은 어떠한가?

둘째, 현재 학급배정에 관하여 쌍둥이 아동 및 학부모들은 만족하고 있는가?

셋째, 쌍둥이 아동들의 학급배정과 쌍둥이 아동들의 생활 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研究의 內容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쌍둥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학급 배정 정책에 관한 문헌 및 이론들을 고찰해 본다.

둘째, 서울의 초등학교 쌍둥이 아동 및 학부모들에게 현재의 학급 배정 방식과 그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적응 등에 관해 설문 조사한다.

셋째, 설문 조사한 자료들을 통계 분석하여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에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한다.

4.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전체 표집중 1학년 표집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시내의 일부 초등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지역에 확대하여 일반화시키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쌍둥이 兒童의 特性

1) 쌍둥이의 난성(卵性)

쌍둥이는 일란성(一卵性)과 이란성(二卵性) 쌍둥이가 있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정자와 한 개의 난자가 수정하여 생성되므로 100%의 유전인자를 공유하고 있다. 이란성 쌍둥이는 두 개의 난자와 두 개의 정자가 각각 수정하여 생성되므로 형제와 마찬가지로 약 50%의 유전인자를 공유하고 있다²⁾.

난성(卵性) 진단은 쌍둥이가 일란성이나 이란성이나를 판별하는 진단이다. 일반적으로 이란성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로 착오되는 것보다도,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로 착오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과거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태반이나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음모막과 양막이 하나인가 둘인가를 보고 단순히 난성을 진단하여 종종 난성에 대해 잘못된 판별을 하였다. 오늘날은 쌍둥이의 태반이나 양막 등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출산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이 태반의 상태만 보고 난성을 진단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난성(卵性) 진단검사는 크게 지필검사, 인체 측정 검사, 혈액형 검사, DNA 검사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 DNA검사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필 검사는 설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가족, 친척 및 친구들, 낯선 사람들로 부터 쌍둥이가 얼마나 혼동되는가 (특히 어린 시절), 그리고

2) Falconer, D. S(1981). 「Introduction to quantitative genetics」, London : Longman. pp. 20-46.

신체적 특성들, 즉, 키, 몸무게, 눈 색깔, 머리색깔, 피부색 등과 같은 유전도가 높은 특성에 있어서 얼마나 유사한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필 검사는 적은 비용으로 난성을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도가 비교적 낮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지필 검사 결과는 DNA 검사 결과 약 90% 내지 95% 정도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³⁾.

2) 쌍둥이의 심리 발달의 특징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 문제는 쌍둥이 아동들의 심리 발달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쌍둥이 아동들의 심리 발달의 특징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쌍둥이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교

쌍둥이는 조산 및 출생 당시의 스트레스, 출생시의 저체중, 두 명을 동시에 양육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모들의 과중한 부담 등의 문제들이 쌍둥이의 신체 발달, 지능 발달, 언어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지만⁴⁾, 학령기에 이르러 많은 쌍둥이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을 따라 잡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⁵⁾. 이러한 신체적 취약성은 이란성보다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출생시의 스트레스 및 태내의 불리한 환경 조건으로 쌍둥이 가운데 뇌성 마비 발생률과 유아 사망률도 높은 편이었는데, 최근 의학의 발달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 밖에 일반아동에 비해 쌍둥이 아동들은 왼손잡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⁶⁾. 성격, 흥미 등의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 쌍둥이와

3) Ooki, S., Yamada, K., & Asaka, A.(1991). 「Zygosity diagnosis of twins by questionnaire for twin's mothers.」 : *Shoni Hoken Keikyu*. 50, pp. 71-76.

4) Hay, D. A. & O'brien.(1981). 「The interaction of family attitudes and cognitive abilities in the La Trobe Twin study of Behavioural and Biological Development」, In L. Gedda, P. Parisi. & W. E. Nance (Eds), *Twin Research* 3 New York :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p. 235-250.

5) Wilson, R. S.(1983). : The Louisville Twin Study. 「Child Development」 54. pp. 298-316.

6) Orlebeke, J. F. Knol, D. L. Koopmans, J. R. Boomsma, D. L. & Bleker, O.

일반아동들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아동기에 있어서 쌍둥이들이(특히, 일란성 쌍둥이들이) 일반아동보다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⁷⁾.

쌍둥이라는 사실이 사회적 발달을 방해하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다른 아이들이 쌍둥이들을 개별적 인간으로 대접해 주지 않고 마치 그들이 각자로서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라도 하듯 묶어서 취급하는 경우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의 독특한 관계를 존중해 주기 바라면서 동시에 그들을 개별적인 인간으로 보아주기를 바란다.

(2)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비교

일란성 쌍둥이는 신체적 및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특히 이란성 쌍둥이에 비하여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면에서 더욱 서로 닮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는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 지능에 있어서 매우 비슷하다. 특히 일란성 쌍둥이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능이 더욱 닮아 가는 경향이 있고, 이란성 쌍둥이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능의 격차가 생기는 경향이 있다. 이란성 쌍둥이의 지능 격차의 정도는 형제간의 지능 격차 정도와 비슷하다. 학업 성적에 있어서도 이란성 쌍둥이보다도 일란성 쌍둥이가 훨씬 더 닮은 경향이 있다. 성격, 직업, 흥미, 창의성에 있어서도 일란성 쌍둥이는 이란성 쌍둥이보다 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지능이나 학업 성적에 있어서 만큼은 유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란성 쌍둥이의 유사성은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추론되고 있다⁸⁾. 그러나, 많은 신체적 및 심리적 특성들이 유전자뿐만 아니라, 태내 환경, 출산 당시와

P.(1996). 「 Left-handedness in twins : Genes or environment? 」 : Cortex. pp. 32, 479-490.

7) N. L Segal(2000). 「"Twins in the classroom : School Policy Issues and Recommendation"」, :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3(1). pp. 69-84.

8) Lyton, H(1998). 「Parent-child interaction」, New York : Plenum. pp. 55-80.

출생 후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들이 모든 면에서 똑같은 것은 아니며, 성장하면서 개인으로서 고유한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일란성 쌍둥이들은 이란성보다 학교 성적이 훨씬 더 비슷할 것이다. 남녀 쌍둥이는 특히 언어와 읽기 능력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쌍둥이 아동들이 읽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쌍둥이라는 상황 그 자체보다는 출생시의 체중 미달과 관련이 있다. 아마도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 그리고 일반아동보다는 쌍둥이 아동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일란성 쌍둥이들이 이란성 쌍둥이들에 비해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함께 공부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친구를 사귀고, 부모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슷하게 대우를 받는 등 환경을 더 많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쌍둥이는 같은 연령이고, 종종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모, 학교 성적, 성격, 품행 등의 면에서 타인으로부터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쌍둥이들은 서로에게 질투심을 보이며 경쟁하거나, 학교 및 가정에서 협동하여 조화롭게 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지나치게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쌍둥이 외의 다른 친구나 형제들을 배타할 수도 있고, 쌍둥이 중 한 쪽이 지나치게 우세하고 다른 쪽이 지나치게 열세하여 쌍둥이간에 의존-지배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 일란성 쌍둥이가 훨씬 더 유대관계가 강하고 심리적으로 서로 가깝게 느낀다. 이러한 쌍둥이의 고유 문제들로 인하여 쌍둥이들의 대인관계 발달, 사회성 발달문제들은 부모와 교사들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¹⁰⁾.

9) Loehlin & Nichols(1976).

10) Ibid, pp. 69-84.

2. 쌍둥이 兒童의 敎育

학령기는 아동들이 친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쌍둥이들이 각각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부모나 교사들이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쌍둥이들을 각자의 친구 집에 각각 따로 따로 놀러가도록 하거나, 개별적인 취미 활동을 권하는 것 등이다. 혹은, 쌍둥이를 다른 학교나 다른 반에 배정하거나 한 학급에 있더라도 서로 자리를 떨어지게 하여 각각 서로 다른 아동들과 친구관계를 만들어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쌍둥이들의 개별적 관계와 행동을 권장하면, 서로 능력이 직접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우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심리적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거나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게 할 뿐 아니라, 쌍둥이들에게 독립된 개체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들을 배우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11).

쌍둥이가 개성 및 자아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좋다. 쌍둥이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각 개성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이 노력한다. 비슷한 옷만 입어왔다면, 서로 다른 옷을 입어보도록 권해 보고 각자가 개성에 맞게 옷을 선택하도록 권장한다. 신발, 옷, 소지품 등을 구매할 때, 항상 쌍둥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사주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신발이 필요하고, 다른 쪽은 필요 없을 경우가 있다. 신발을 두 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거나 편리하다면 모르지만, 한 쪽에게 신발을 사주었다는 이유로 다른 쪽에도 신발을 같이 사 줄 필요는 없다. 또한, 소지품은 가능하면 각각 따로 사용하도록 권하고 항상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필요도 없다. 쌍둥이가 외모가 매우 닮아서 다른 사람들이 구별하기 힘들 경우, 헤어스타일 등을 바꾸어 구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안전이나 개성을 위하여 좋다. 쌍둥이 아동들과 대화할 때, 두 명에게 한꺼번에 이야기하지 말고, 각각

11) L. H. Collier(1996). 「The Psychology of Twins : A Practical Handbook for Parents of Multiples.」 : The Business Word - Englewood, co. pp. 10-114.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쇼핑 등을 나갈 때에도 종종 따로 따로 데리고 나가서, 각 쌍둥이와의 고유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남녀 쌍둥이는 동성 쌍둥이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경향이 있다. 남녀 쌍둥이는 구별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쌍둥이간의 특별한 우애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남녀 쌍둥이를 서로 서로 비교하거나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쌍둥이 중 종종 여아가 더 사교적이고, 활발하며, 자기의 남자 쌍둥이 형제를 통제하기도 한다. 남녀 쌍둥이 중 남자 쌍둥이는 또래보다 종종 유순하고, 덜 공격적일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여자 쌍둥이가 자기의 일을 통제하게 내버려두기도 한다. 이 때, 남자 쌍둥이가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수동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쌍둥이 중 한 명이 훨씬 더 지배적일지라도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덜 지배적인 쌍둥이가 결정을 내리는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하게 되거나 지배를 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한 쌍둥이가 지속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설 경우, 게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도적 역할을 교환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 덜 지배적인 쌍둥이에게 점심 메뉴를 결정하게 하는 등, 조그만 일상생활의 일에서부터 의사 결정 과정에 끌어들이도록 노력한다.

쌍둥이에게는 부적절한 질투나 경쟁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조심스럽게 대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경쟁은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나, 지나친 경쟁은 갈등과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부모들은 쌍둥이 각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쌍둥이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야 한다. 쌍둥이를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개성을 칭찬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는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순서를 정하거나 결정을 내리

도록 한다¹²⁾.

12) 패트리셔 맬름스트롬 · 재닛 폴런드 공저(2001). 노순옥 옮김, 「쌍둥이 잘 기르기」, 서울 : 올림. pp. 255-276.

3. 學級 配定 方法

1) 학급 배정의 일반적인 방법

예전에는 학급 배정을 보통 석차 순으로 했었는데 평가제도가 바뀌면서 수행평가를 통한 서술형 표현방식으로 성적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출석번호(생년월일/성명) 순으로 학급 배정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담임이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인성발달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평점을 매기고 그것에 의하여 학급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학급은 여러 종류의 학교조직 중 교수-학습조직의 최하위 단위이다. 따라서 학급조직은 교수-학습을 담당하는 최일선 조직으로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학교교육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교수-학습조직의 기본요소가 교육과정, 학생, 교사, 물적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급조직은 그러한 요소들이 교수-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학급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이 그 조직을 통해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학급을 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 작용은 물론 학생들간의 상호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³⁾.

먼저 학급 배정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개인차를 지닌 집단으로 배정해야 한다. 또한 연령,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숙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로 배정하되 수준이 높거나 낮은 학생들과도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

13) 권기욱(1996). 「학급경영론」, 서울 : 원미사. pp. 31-32.

해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학급 규모를 적정화해야 하고 융통성 있게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급간에 언제나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학급을 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담임이나 학생집단의 특성에 따라 학급을 배정하는 방법인데 담임에 의한 편제, 능력에 의한 편제, 학년에 의한 편제, 연령에 의한 편제, 학생특성에 의한 편제 등이다¹⁴⁾.

이밖에 쌍둥이, 학습부진아, 신체장애아 등 특수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분리하거나 같은 반에 배정하고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쌍둥이들이 일반 아동들과 다른 점이 있지만 비슷한 점이 훨씬 더 많이 있다”¹⁵⁾는 사실과 쌍둥이의 부모와 쌍둥이 아동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그들의 특수한 마음 상태를 고려하여 학급 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2) 이질학급과 동질학급 배정

학년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행 학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급배정 형태가 이질집단 배정이다. 이질집단 배정은 한 학급에 능력에 상관없이 우수아, 보통아, 지진아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배정하는 방법이다.

이질집단의 학급은 한 교사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기 때문에 교사는 개개 아동을 잘 알게 되고, 학급 아동들은 상호간에 안정된 우정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학급배정 방법은 비교적 용이하고 학급경영이 편리하기 때문에 널리 실시되고 있는 형태이다.

14) 권기욱, 전제서, pp. 33-40.

15) Tumbull, A. P., & Schulz, J. B.(1979). 「Mainstreaming Handicapped Students」, Boston : Ally & Bacon. pp. 60-65.

이질집단 즉 일반학급을 배정할 때 유의할 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우수아, 보통아, 지진아 또는 열등아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들이 각 학급에 고르게 배정되도록 한다.

(2) 지도력 있는 학생을 각 학급에 고르게 배치한다.

(3) 쌍둥이, 동명이인, 문제가 있는 아동을 각 학급에 분산 배치한다.

(4) 저학년의 경우 통학구역이나 거주지, 교우관계 등을 고려한다.

(5) 장애아, 즉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아동이 있는 학급의 교실은 특별히 고려한다.

(6) 일단 학급배정이 된 다음에는 가능한 한 학급변동을 하지 않는다.

동질집단 배정은 흔히 능력별 반 배정 또는 열성 반 배정이라고도 하는데 능력이 비슷한 동질적인 학생들로 학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동질집단의 배정은 학생들 간의 개인차가 심하지 않으며, 교사는 그 집단의 능력수준에 맞는 단일한 교재와 교수기술을 개발하여 가르치면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학급 내에서는 학생 상호간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학급 집단 간에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존재하고, 학급간의 능력 차이를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동질집단의 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계의 연구에서도,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결론이 없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동질집단 반 배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개인차에 따른 학습지도를 할 수 있다.

(2) 학습의 능률이 오른다.

(3) 교사가 교재나 학생을 다루기 쉽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장점 못지 않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한다.

(1) 능력의 기준이 모호하다. 인간의 능력은 지적, 도덕적, 정신적(창의력과 사고력 등), 사회력, 신체적, 심미적 세 측면이 있는데, 그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2) 어느 특정 능력을 기준으로 동질집단을 배정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능력에는 여전히 능력 차가 남기 마련이다.

(3) 흔히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등 수 개 교과 성적의 평균점이나 전 교과 성적의 평균점으로 능력별 반 배정을 할 경우 그 평균점수의 통계학적인 의외가 희박하다.

(4) 무엇보다도 열반 학생들의 열등감과 우수반 학생들의 우월감간의 갈등이 문제이다. 우수반에 소속됨과 동시에 우수학생이 되고, 열등반에 소속됨과 동시에 열등 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어 부작용이 많다.

(5) 우열반 학생간의 감정갈등은 우수반 담당교사와 열등반 담당교사간에, 그리고 우수반의 학부모와 열등반의 학부모간의 감정 갈등으로 까지 연장되기 쉽다.

(6) 동질집단을 배정하여 교육하는 것은 능력별 프로그램과 지도방법으로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이르러서는 우수반이나 열등반이나 다같이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취시켜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열반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우수반은 더욱 우수하게, 열등반은 더욱 열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7) 열등반을 지도할 전문적으로 훈련된 교사가 부족하고, 능력별 교육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8) 능력별 학급은 한 학년 내내 고정식일 수는 없고, 원 학급이 고정적으로 있고 특정 교과시간에 한해 능력별로 집단을 달리하는 이동식이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학급경영과 학적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9) 능력별 반 배정의 기본철학이 잘못되어 있다.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려는 것이 우선이고, 우수아의 수월성, 그것도 지적 수월성만을 강조하지, 열등아의 인격과 개성 및 능력도 동등하게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열등아의 수월성 보장이라는 본래의 정신이나 전인교육이라는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실천하려는 의지는 희박하다.

능력별 반 배정은 이상과 같은 문제가 해소될 사전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야 가능하며, 능력별 교과수업 외에도 다양하고 균형 있는 생활경험과 공동체의식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¹⁶⁾.

3) 특수아의 학급 배정

특수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만 ‘일반아동에 비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가진 아동’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 정의¹⁷⁾와 교육학 대백과 사전에서 ‘지적 기능,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기술, 감각 기능, 신체 기능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정상(일반, 보통 또는 대다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아동’이라고 개념 규정한 것과 교육학 용어 사전에서 ‘심신의 장애를 가진 아동과 영재아’라고 개념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쌍둥이 아동이 넓은 의미의 특수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특수아의 학급배정에 관한 원칙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1)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

특수아들은 최대한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특수한 사정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를 상실해서도 안되며 사회에서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일반인과 완전히 동등한 모습으로 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온전하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폭넓은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없는 물리적인 통합교육은 교육적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특수아들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또래들과의 자연스러운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결국 학업 수행 능력까지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

16) 남정걸(200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 교육과학사. pp. 377- 381.

17) 조용태(2001). 「특수아 상담」, 서울 : 양서원. pp. 13-16.

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과제와 관련된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하게 했을 때 특수아동의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업적인 성취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어 왔다¹⁸⁾.

그래서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과 특수아들이 통합 환경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의 특성들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와 교수전략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이와 같은 방법론의 적용이 통합교육을 주도하게 될 일반교사들의 충분한 이해와 주의 깊은 계획,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특수아 교육에 있어서 통합교육은 이미 그 중요성과 실효성이 널리 인식되어지고 있다.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많은 문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회-윤리적 측면에서의 통합 교육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통합교육은 특수아동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둘째 분리교육이 특수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정상적인 사회 통합이 특수아동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질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순조로운 사회 적응을 위해서 특수아 본인과 그 주위의 사회인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은 아동기부터의 통합교육으로부터 서서히 이룩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교육은 기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시설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사회적인 현실을 생각한다면 통합교육으로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 Gresham, F. M. & Elliott, S. N.(1984). 「Social skills deficits as a primary learning disability.」: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2, pp. 120-124.

교육적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수아동은 통합 환경에서 또래들을 관찰함으로써 생활연령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게 되며¹⁹⁾ 자신의 현재의 능력보다 진보된 교육환경을 통해서 인지 및 언어 영역의 발달이 촉진되고²⁰⁾, 특히 학령전기의 장애유아들은 통합 환경에서 명백한 발달적 성취를 보이는²¹⁾ 등의 많은 교육적 혜택 중의 하나는 통합을 통한 특수아동의 사회적 발달의 촉진이다²²⁾. 특수학생들은 학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정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특수학생과의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서 특수아도 나와 비슷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학교라는 지역사회가 특수학생들도 포함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감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통합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교육적인 혜택들은 단순히 특수아를 일반아동들과 함께 교육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아동과 함께 동일한 교육 환경에 배치하였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수방법을 얼마나 잘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²³⁾. 다시 말해서, 통합의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특수학생들이 또래들에게 수용되고 사회적 상

19) Turnbull, A. P. & Schulz, J. B. (1979). 「Mainstreaming handicapped students: A guide for the classroom teacher」, Boston : Allyn and Bacon. pp. 35-55.

20) Bricker(1978). 「A rationale for the integration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reschool children. In M. Guralnick (Ed), Early intervention and the integration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Baltimore : University Park Press. pp. 3-26.

21) Odom & McEvoy(1988). 「Integration of young children with handicaps. In S. L. Odom & M. B. Karnes (Eds), Early interven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with handicaps」, Baltimore : Paul H. Brookes. pp. 241-268.

22) Brown, L. , Long, E., Udvari-Solner, M., Davis, L., Van-Deventer, P., Ahlgren, C., Johnson, F., Gruenewalk, L., & Jorgensen, J.(1989). 「The home school; Why student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must attend the schools of their brothers, sisters, friends, and neighbors.」;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4(1). pp. 1-7.

23) Ibid, pp. 3-26.

호작용이 발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더불어 사는 통합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특수아동과 일반아동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일반학급에서 겪는 특수아동의 사회적 어려움

일반학급의 통합되어 있는 대부분의 특수아들은 학급 내의 또래들이나 교사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곤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용한다. 먼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특수아들이 지니고 있는 행동적인 특성일 것이다. 특수아들은 어려서부터 외모나 행동이 다른 아동들과 다른 경우가 많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나 학교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거나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아들의 일반 또래아동들과 다른 행동적인 특성은 일반학급의 또래들과 교사들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특수아들도 나름대로의 능력과 재주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개별 아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아들과의 친숙한 경험이 없고 정확한 정보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일반아동들과 교사들은 흔히 이들이 보여주는 또래들과의 유사점이나 재능은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적인 차이점과 무능력에만 초점을 두어 특수아동을 향한 거부감이나 편견 등을 나타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적대감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다.

둘째, 특수아들이 일반학급에서 보이는 어려움은 이들이 보이는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특수아들은 이전의 학교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게 된 실패 경험을 지니고 일반학급에 통합된다. 이때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나 일반학급에서의 과제 및

활동 수행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되며, 이러한 불안감은 이미 경험해 온 열등감과 더불어 이들을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만든다. 또한 특수학급의 운영 형태에 있어서 원적학급(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이중으로 적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특수아들의 일반학급에서의 사회적 위축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특수아들의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일반학생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들며, 일반학생들의 거부적인 태도가 다시 특수아들의 사회적 위축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한다.

셋째, 특수아들은 사회적 기술의 결함으로 인하여 통합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곤 한다. 특수아들은 기타 발달 영역에서 지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발달면에서도 지체될 수 있다²⁴⁾. 그러므로 이들이 보이는 지체되거나 빈약한 사회적 기술은 일반학생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²⁵⁾. 일반적으로 많은 특수아들은 일반학급의 또래들처럼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학습장애아의 경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언어 기술의 결핍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다²⁶⁾. 특히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단서(예: 얼굴 표정, 몸짓)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결함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 또한 특수아들은 어려서부터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사회친숙도 검사에서 또래들

24) Ibid, pp. 241-268.

25) Hollinger, J. D.(1987). 「Social skills for behaviorally disordered children as preparation for mainstreaming: Theory, pratice and new direction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pp. 17-27.

26) Bryan T.(1974). 「Peer popularity of learning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7. pp. 621-625.

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²⁷⁾).

넷째, 일반학급 교사들의 특수아동을 향한 부정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태도에 의해서 특수아들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특수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며, 칭찬에 인색하고, 특수아와 일반아동을 동등한 가치를 두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특히 이러한 경향은 아동이 남아인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²⁹⁾. 이와 같은 교사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아동의 표찰(정신지체, 학습장애, 자폐 등의 장애명)에 의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³⁰⁾.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교사들의 주의 깊은 관찰과 열린 마음은 특수아동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수준을 설정하게 해주기 때문에 단순한 표찰에 의한 부정적인 태도는 교정될 수 있다. 교사의 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수학생을 위한 훈련과 경험의 부족이다³¹⁾. 훈련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떤 교사들은 특수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교사들은 특수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마지못해 해야 하는 별로 즐겁지 않은 일로 인식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이와 같은 태도가 학급 내의 모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통합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므로³²⁾ 교사들은 특수학생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아들은 부모들에 의해서 부적인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

27) VcIntosh, Vaughn, Zaragoza, 1991.

28) Heron & Haris(1993). 「The educational consultant (3rd ed.)」, Austin ; TX: Pro-ed. pp. 35-55.

29) Schlosser & Algozzine(1980). : Slate & Saudragas(1986). : Stitt et al(1988).

30) Lewis, R. B. & Doorlag, D. H.(1995). 「Teaching special student in the mainstream.」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 33-53.

31) Ibid, pp. 35-55.

32) Garret & Grump,(1980). 「Peer acceptance, teacher preference, and self-appraisal of social status of learning disabled students.」 ;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pp. 42-48.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과잉보호하는 특수아 부모들에 의해서 특수아들은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제한된 경험만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통합 환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몇몇 일반 아동 부모들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통합을 반대하거나 자신의 자녀들이 특수아들을 친구로 사귀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태도를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아들이 일반학급에서 생활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수아동이 통합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은 특수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들과 직접적인 교수 전략을 살펴보겠다.

(3) 사회적 통합 촉진을 위한 기본적 원리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특수아를 단순히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사회적 수용이나 사회적 기술의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교사들은 특수 학생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실제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만 한다. 통합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대상 학생들의 학문적, 행동적, 신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³⁾. 이 부분에서는 특수아들의 사회적 수용을 고려한 성공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을 살펴보겠다³⁴⁾.

33) Cresham(1984) : York, Vander-cook, MacDonald , Heisene-Neff, & Caughey (1992).

34) Ibid, pp.135-201.

① 정보 제공을 통한 태도 변화

교사의 태도는 학급내의 학생들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특수 학생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교사들에 의해서 조성될 수 있다³⁵⁾. 그러므로 교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이 학생들에게 모델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특수학생의 사회적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태도는 정보에 의해서 형성되거나 수정된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특수학생에 관한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의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³⁶⁾. 정확한 정보는 잘못된 개념과 이해들은 수정해주고 편견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학급의 교사와 학생들은 통합된 장애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⁷⁾.

특수학생에 관한 정보는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와 같은 특수교육 현장을 방문하거나 특수학생이나 장애인을 학급의 강사로 초대하는 등의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특수학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수학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친숙해지고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② 특수아동과 일반아동들 간의 유사점 인식

일반적으로 일반학급의 교사와 학생들은 특수아동의 능력을 평가할 때

35) Cartledge, Frew, & Zaharias(1985). 「Social skill needs of mainstreamed students; Peer and teacher perceptions.」;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pp. 132-140.

36) Donaldson & Martinson(1977). 「Modifying attitudes toward physically disabled persons.」; Exceptional Children. 43, pp. 337-341.

37) Fiedler & Simpson(1987). 「Modifying the attitudes of nonhandicapped students toward handicapped peers.」; Exceptional Children. 53, pp. 342-349.

그들의 신체적 외모나 표찰(장애명), 또는 가끔씩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하기 쉽다. 교사가 특수아동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교사들의 태도나 생각이 특수아동의 교수 활동에 대한 기대 및 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외모나 붙여진 장애명은 그 아동의 교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성격적인 특성을 예측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료일 뿐이다. 그러므로 교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기술과 능력에 관한 특정 진단 정보가 있어야 하며 교실 내에서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학급 내의 한 학생이 시각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단순한 정보는 교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점자를 통해서만 책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중 교사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학습하며 사회적으로도 급우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좀더 상세한 정보는 교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근심을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장애아동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면 그 아동이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때때로 통합된 특수아동들의 여러 가지 행동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이라고 칭하는 많은 일반아동들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학습상의 문제나 부적절한 행동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특수아동을 대할 때 지니고 있는 결함이나 문제를 부각시킨 ‘특수학생’으로서가 아니라 특수한 교육적 고려를 필요로 하기에 앞서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학생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특수아들은 일반아동들과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을 훨씬 더 많이 지니고 있다”³⁸⁾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38) Ibid, pp. 65-77.

③ 통합을 위한 일반아동 준비

일반학급 학생들은 장애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 중에 특수아가 없는 한 특수아와의 접촉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된 경험이나 지식은 특수아에 대한 편견과 비수용적인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특수아는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차별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도 있다.

'차별 의식'이란 상대방에 대한 편견에 의해서 형성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태도는 학습되는 것이므로³⁹⁾ 일반학급 학생들의 특수학생에 대한 태도는 향상될 수 있으며 통합된 특수학생에 대한 사회적 수용 정도도 증가될 수 있다⁴⁰⁾.

특수아동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수용 정도의 긍정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아동을 일반학급에 배치하기 전에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통합될 특수아동의 장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수아동을 보조할 수 있는 기술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④ 일반 아동과 통합을 위한 특수아동 준비

통합 환경에서 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거부당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특수아동 스스로가 사회적 기술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특수아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한 특정 훈련을 받아야 한다⁴¹⁾. 이러한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필요한 적절한 사회적 행

39) Allport(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pp. 61-78.

40) Fox(1989). 「Peer acceptance of learning disabled children in the regular classroom.」;Exceptional Children. 56. pp. 50-59.

41) Brady & McEvoy(1989). 「Social skills training as an integration strategy.」

동들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일반 아동 또래나 성인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학습시킬 수 없다. 모델링이나 연습 등과 같은 특별한 교수가 필요하며,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종합 보고한 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기술 교수는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개별이나 소집단중심의 구조화된 학습인 것으로 나타났다⁴²⁾.

⑤ 통합을 위한 부모 준비

통합교육에 있어서 일반아동과 특수아동의 부모는 모두 특수아동의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는 자녀들의 태도와 교사들의 노력 정도, 더 나아가서는 학교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들은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일반아동과 특수아동들 모두에게 적절한 교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그 외에도 특수아 부모들은 특수아들이 사회적으로 거부되거나 놀림을 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였으며⁴⁴⁾, 통합 환경에서 적절한 도움과 교육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⁴⁵⁾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적절한지⁴⁶⁾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로 인한 행동

Baltimore ;Brookes. pp. 213-231.

42) McIntosh, Vaughn, Zaragoza(1991). 「A review of social interventions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pp. 24, 451-458.

43) Stoneman(1993), 「The effects of attitude on preschool integration.」. pp. 223-248.

44) Bailey & Winton(1987). 「Stability and change in parents' expectations about mainstreaming.」 ;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pp. 73-88.

45) Green & Stonman(1979) ; Peck, Hayden, Wandshnieder, Peterson. & Richarz, (1989). ; Turnbull et al. (1983).

46) Peck et al(1989). 「Development of integrated preschool: A qualitative inquiry into sources of resistance among parents administrators, and teacher.」 ;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pp. 353-364.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지⁴⁷⁾ 등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의 부모들은 특수아동이 자신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특수아동과 한 학급에 배치된다는 사실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필요와 프로그램의 목적, 통합이 특수 및 일반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의 교사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우려에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자폐아를 통합시킨 한 연구에 의하면 자폐아의 사회성 발달이 오히려 촉진되었으며⁴⁸⁾,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정상아들은 교육받기 전보다 특수아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을 받은 학령 전 특수아들의 교육성과는 적어도 분리교육에서 얻는 성과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이와 같은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부모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좀더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며 사회에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특수아동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교사들은 특수아동을 통합하기 전에 자신의 학급이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를 점

47) Ibid, pp.73-88.

48) Nordquist, Twardz, & McEvoy(1986). 「Some longitudinal effects of behavioral interventions on nonhandicapped children in two mainstreamed preschools.」. pp. 123-140.

49) Esposito & Peach(1983). 「Changing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person.」; Exceptional Children, 49. pp. 361-363.

50) Ibid, pp. 241-268.

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통합의 준비도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⁵¹⁾.

51) 이소현, 박은혜(1998).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pp. 24~35.

4. 쌍둥이 兒童의 學級 配定

아이들이 같은 반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반이 되느냐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사실 이것은 아이들의 사회적 환경과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부모와 가정으로부터의 심각한 이별의 표시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동안 수백 명의 교직원들과 쌍둥이들의 배치에 대해 협의한 바에 따르면 “나이와 발달 단계와 상관없이 쌍둥이들은 반을 따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쌍둥이들이 학교에서 같이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는 있다. 처음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고 할 때 지금껏 지속되어 온 그들의 관계는 간과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이다⁵²⁾.

쌍둥이 아동들의 학급 배정을 할 때 학부모와 교사의 주안점은 아이들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그들의 관계를 존중하면서도 한 개체로서의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한 쌍둥이들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힘든 일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어느 여섯 살짜리 쌍둥이 자매는 교장 선생님이 자기와 언니를 떼어놓으려고 하자 자기들이 쌍둥이인 것이 나쁜 것이냐고 항의하였다고 한다.

대개의 교사들은 쌍둥이들을 분리함으로써 그들을 일반 아동들과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학교는 예컨대 경쟁이나, 뽐내기, 과장된 행동 등 ‘쌍둥이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한 분리시키는 것이 독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분리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교사들이 전 학년 내내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이 취급하던 몇 세대 전의 관행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학교에서의 분

52) 패트리셔 맬름스트롬 · 제넷 폴런드(2001) 공저 노순옥 옮김, 「쌍둥이 잘 기르기」, 서울 : 울림. pp. 255-268.

리는 일부 가정에서 지나치게 서로 의지하도록 키운 데 대한 대응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실제로 쌍둥이들의 관계가 병적으로 가까워서 분리가 도움이 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쌍둥이들이 문제 가정에서 자란 희귀한 경우로 똑같은 원칙을 정상적인 쌍둥이 아동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쌍둥이 아동을 다른 학급에 배정한 경우에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는 쌍둥이들이 있다. 그들이 보이는 징후는 육체적 공격성, 오줌 싸기, 실어증, 갑작스러운 수줍음, 불안, 초조, 매달리는 행동 및 교실에서의 학습 장애 등이다.

저학년 시기에 쌍둥이들이 같은 반에 있어서 고통받는다는 얘기는 부모들로부터 거의 듣지 못한다. 반대로 같은 반에 배치된 쌍둥이들은 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에서 혜택을 받는 것 같다. 같은 반에 배치된 쌍둥이들이 서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학습이나 놀이에 쉽게 참여하는 성공적인 적응 사례를 자주 듣는다.

일단 쌍둥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나면 그들이 분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그래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이다. 해마다 아이들이 한 반에 있는 것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지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것을 검토할 때는 학교의 추천 사항도 포함해야 하며 아이들의 소망도 고려해야 한다.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며 어느 시점에는 아이들이 서로 다른 반에 있기를 바랄 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 관계의 자연스러운 진화다. 때로 부모가 의견을 물었을 때 한 아이는 따로 있고 싶어하고 한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차이점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아이는 적응을 잘하는데, 다른 아이는 미숙할 경우 아이들이 관계의 밸런스를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센스 있는 선생님이 맡은 반에 함께 배치하면 그들의 관계가 개인적인 차이와 장점을 시인하는 것과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게 해줄 것이다. 선생님이 여유 있고 아이들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교사라면 수줍은 아이를 도와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활동과 친구를 찾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교적인 아이는 쌍둥이 짝의 사교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친구를 사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쌍둥이들이 학교를 같이 시작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할만한 일이지만, 유치원 때부터 각각 다른 반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원할 때와 아이들이 성격이나 능력 면에서 상당히 다를 때, 그리고 쌍둥이 중 한 아이가 다른 쌍둥이 형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감정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 그리고 쌍둥이들이 각각 다른 역할에 묶여서 행동을 제한 받게 될 때이다⁵³⁾.

53) *Ibid*, pp. 268-276.

5. 先行研究의 考察

1) 일반적인 학급 편성에 대하여

남궁기운⁵⁴⁾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학급편성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은 성적 중심(53.6%), 특기·흥미 중심(33.6%), 거주지별(4.9%), 연령 중심(3.9%), 가정 환경(2.8%), 기타(1.8%)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저학년 담임일수록 성적 중심의 학급편성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저:59.4%, 중:57.6%, 고:43.7%) 고학년 담임일수록 특기·흥미 중심의 학급 편성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고:46.1%, 중:29.7%, 저:23.5%)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성적 중심의 학급 편성을 하면서도 창의력이 요구되는 현시대에서 아동들의 특기와 흥미 중심의 학급 편성이 아동들의 장래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쌍둥이 아동들의 학급 편성에 대하여

Segal과 Russell⁵⁵⁾의 연구에 따르면 쌍둥이 아동들에 대한 학교의 배정 정책을 알고 있는 48%의 부모들이 쌍둥이를 다른 학급에서 생활하게 하는 일반적인 현실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란성(13%)보다 일란성(35%) 쌍둥이 부모가 저학년일 때는 같은 교실을 쓰기에 찬성했다고 한다.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 문제에 관해서는 학급을 분리시키는 쪽이 좋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분리시켜야 한다는 쪽은 분리시킬 경우 쌍둥이의 개성 발달을 돕고, 교사들이 쌍둥이를 개별적으로

54) 남궁기운(2000). 「초등학교 학급편성과 담임교사 배정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pp. 35-44.

55) Segal & Russell(1992), 「Twins in the Classroom : School Policy Issue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3(1), pp. 69-84.

더 잘 알게 된다고 주장하고, 같은 학급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분리가 쌍둥이에게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준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는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각 쌍둥이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 학교 시작 후 첫 일 내지 이년간은 같은 학급에 두었다가, 다른 학급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다⁵⁶⁾.

학교와 유치원 프로그램이 쌍둥이 분리교육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쌍둥이들은 아무 정책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느낀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결론을 맺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러한 결정들이 하나 하나의 경우마다 다르게 결정되어야 하고, 엄격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듯하다.

Collier (1996)에 의하면 쌍둥이들의 학급 배정을 다룸에 있어서 학교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쌍둥이 아동들의 개별적 성장 발달, 독립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이고, 둘째는 쌍둥이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쌍으로 여겨, 쌍둥이를 항상 묶어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 유형이다. 세 번째는 쌍둥이 각 개인 및 쌍들의 욕구와 차이를 존중하는 유형으로서 쌍둥이 개별 및 각 쌍들의 욕구에 따라 같은 학급으로 배치하거나 각각 다른 학급으로 배치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는 유형의 학교이다. 첫 번째 유형의 학교에서는 쌍둥이간의 정서적 상호관계나 쌍둥이간의 상호의존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쌍둥이들이 같은 학급에 배정되어 지나친 경쟁이나 쌍둥이 둘만 같이 다니고, 교류하여 다른 일반아동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편이다. 쌍둥이들을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권장하는 경향이다. 두 번째 유형의 학교는 쌍둥이를 개별적으로 대하지 않고, 평가도 개별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56) *Ibid*, pp. 33-45.

있다. 쌍둥이의 문제점들도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함께 생각하여 처리하고자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의 학교는 반 배정에 앞서 학부모와 쌍둥이 아동들의 의견을 듣는다.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쌍둥이들의 독립성 여부, 의존도 여부 등을 평가한다. 쌍둥이 아동들의 분리 및 합동의 욕구가 바뀔 때는 그 욕구에 따라 학급 배치를 변경할 수 있다. 쌍둥이들의 각 개별적 성장 및 성취를 도울 뿐 아니라, 쌍으로서의 관계도 존중하고, 기념일 등을 축하해준다. 쌍둥이들이 자유롭게 똑 같거나 비슷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할 때에는 각각 서로 다른 활동을 선택할 수도 있어서 학교가 쌍둥이들의 활동 선택을 강요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⁵⁷⁾고 하였다.

3) 쌍둥이 아동의 학급 분리 배정을 결정짓는 요인들

Segal과 Russell(1992)에 의하면 교실 내 쌍둥이 서로간의 비교는 쌍둥이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유발시킨다. 쌍둥이가 아닌 아이들보다 쌍둥이가 더 혼란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분리교육이 유용하다고 고려된다.

여자 쌍둥이는 자신의 다른 성의 상대방 쌍둥이보다 우세한 경우가 많다. 그 ‘우수함’은 상대방 다른 성의 쌍둥이에게 다소 위협적일 수 있다. 쌍둥이들은 학습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곤경에 처하면 서로 돕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자들은 쌍둥이들이 분리된 상황에서 (즉, 서로 돕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분리교육을 통하여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고 싶어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분리 교육이 적절하지 않고 시기에 맞지 않는 결정이 되는 상황들도 있다. 예를 들어 쌍둥이들이 가족 구성원 내에서 특별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거나 혹은 쌍둥이 중 한 명이나 둘 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의 분리 교육은 쌍둥이들에게 불필요

57) Collier, H. L.(1996). 「The Psychology of twins : A Practical Handbook for Parents of Multiples」, The Business word : Euglewood E. pp. 10-114.

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학령기의 쌍둥이의 경우에는 분리교육에 대한 쌍둥이들 자신의 기호를 확인해보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된다. 물론 이러한 쌍둥이들이 기호가 고려되더라도 그들의 감정은 쌍둥이 형제 그룹의 각 구성원들의 장기간의 발달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학급 배정 결정은 부모들의 관점 역시 참고되어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그 문제에 대해 강한 의견(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⁵⁸⁾. 그러나 부모들이 교실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부모들과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교사는 각각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모들을 초대하여 교실에서 그들의 아이들을 관찰하게 한 후, 쌍둥이들을 분리하여 교육시키는 것과 함께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짧은 기간 동안의 실험을 제안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기간동안 교사들과 부모들은 쌍둥이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학교측과 부모들은 팀을 이루어 장기간의 아이들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개별화 교육

Helen Koch⁵⁹⁾ 박사는 각각 다른 교실에서 교육받은 쌍둥이들이 어떤 이로운 점을 가지게 되고 또 불리한 점을 가지게 되는지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분리 교육을 받은 쌍둥이들은 같은 교실에서 교육을 받은 쌍둥이들보다 더 발달된 언어능력을 보여주었고 지적인 능력에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란성 쌍둥이들은 전형적으로 같은 교실에서 가까운 사

58) Segal & Russell(1992). 「Twins in the Classroom: School Policy Issue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 pp. 69-84.

59) Helen Koch(1966). 「Twins and Twin Relations」, University of Chicago. : Chicago. pp. 23-87.

회적 관계를 가지는데 특히 여자 쌍둥이들이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남자쌍둥이들보다 여자 쌍둥이들이 왜 그러한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이성(異性)의 쌍둥이는 서로 다른 교실에서 교육받기를 선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에 관한 이론들이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들은 문화적으로나 여건이 다른 외국의 연구와 실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일반화하여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에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쌍둥이의 학급 배정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Ⅲ. 研究 方法

1. 調査 對象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였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 골고루 설문 조사하였다. 쌍둥이 아동 6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처리가 가능한 384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학부모 전화 인터뷰는 282명에게 통화를 시도하여 180명의 학부모와 통화하였으나 자료 처리가 가능한 응답을 한 161명의 학부모 응답 자료만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유효 응답률은 쌍둥이 아동이 52%, 학부모 전화 응답률은 89%였으며 전체적으로는 68%였다.

<표 1> 조사대상 쌍둥이 아동의 학년 및 성별 분포 (N=384명)

구분	학년	남자	여자	학년 소계	전체에 대한 각학년 비율
저학년	1	13	31	44	11%
	2	31	21	52	14%
	3	30	46	76	20%
	소계	74(43%)	98(57%)	172(100%)	45%
고학년	4	38	30	68	18%
	5	33	41	74	19%
	6	40	30	70	18%
	소계	111(52%)	101(48%)	212(100%)	55%
총계		185(45%)	199(55%)	384(100%)	1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별로 30명이상 고르게 표집하려 하였으나 1학년 남자와 여자의 표본이 좀 적게 되었다. 저학년 남자 아동의 표본은 43%이며 여자 아동의 표본은 53%로 여자 아동의 표본이 13% 더 많고, 고학년 남자 아동의 표본은 52%이며 여자 아동의 표본은 48%로 남자 아동의 표본이 4% 더 많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 아동의 표본은 45%이며 여자 아동의 표본은 55%로 여자 아동의 표본이 10% 더 많다.

<표 2> 조사대상 쌍둥이 아동의 학부모 표본 (N = 161명)

학년	남자	여자	학년 소계
저학년	38(48%)	38(47%)	76(47%)
고학년	42(52%)	43(53%)	85(53%)
총계	80(100%)	81(100%)	161(10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둥이 아동의 학부모 표본 중 남자 아동의 부모와 여자 아동의 부모가 각각 50%이며 저학년과 고학년 쌍둥이 아동의 부모가 각각 50%로 쌍둥이 아동의 학부모 표본은 남자와 여자,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부모 비율이 고르게 되었다.

2. 調查 道具

1) 쌍둥이 아동의 생활 적응 설문지.

이 설문지는 쌍둥이 아동용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학급 배정 희망사항, 학교생활 적응과 만족도, 쌍둥이간의 관계(협동·경쟁·비교) 등을 묻는 설문지로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난성(卵性) 검사지

난성(卵性)검사는 쌍둥이들이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검사이다. 지필 검사로 측정하는 난성 검사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쌍둥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Jackson, Snieder, Davis, & Treiber(2001)⁶⁰⁾. 본 연구에 사용되는 난성 검사지는 일본의 Ooki(1991)⁶¹⁾ 등에 의해서 개발된 것과 Goldsmith(1991)⁶²⁾에 의해 검토된 난성 검사지 들의 문항들을 통합하여 개발된 것이다. 난성 검사지는 쌍둥이들의 머리카락 형태(직모 혹은 곱슬머리), 머리카락 색깔 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의 유사성과 주변 사람들과로부터 구별 받는데 혼돈을 일으키는 정도, 난성에 관한 부모의 소견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난성 검사지는 쌍둥이 어머니가 작성할 수 있도록 쌍둥이 가정에 반송봉투를 동봉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3) 쌍둥이 학부모와 전화 설문

쌍둥이 자녀가 현재 같은 학급에 배정되어 있는지 다른 학급에 배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또 현재의 학급 배정에 만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의 학급 배정은 희망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마지막으로 학급 배정에 누구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인가를 묻는 내용의 전화 설문을 하였다.

3. 資料收集 節次

60) Jackson, Snieder, Davis, & Treiber(2001). 「Determination of twin zygosity: A comparison of DNA with various questionnaire indices」: *Twin Research*, 4, 1, pp. 12-18.

61) Ooki, S., Yamada, K., & Asaka, A.(1991). 「Zygosity diagnosis of twins by questionnaire for twin's mothers.」: *Shoni Hoken Keikyu.* 50, pp .71-76.

62) Goldsmith, H. H.(1991). 「A zygosity questionnaire for young twins: a research note.」: *Behavior Genetics.* 21, pp. 251-257.

설문지는 모두 3차에 걸쳐서 수집하였다. 1차로 2002학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서울 시내를 25개 행정구역으로 묶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교실 사용허락을 받아서 행정구청 관내 학교에 있는 쌍둥이와 부모에게 심리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해진 날짜에 난성 검사, 쌍둥이 양육 및 생활 적응 설문지, 쌍둥이의 생활 적응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2차와 3차는 표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2차는 2002년 11월에서 12월에, 3차는 2003년 2월에 걸쳐 난성 검사, 쌍둥이 양육 및 생활 적응 설문지, 쌍둥이의 생활 적응 설문지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돌려서 수집하였다.

4차는 쌍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급 배정 방식과 학급 배정결과에 만족하는지 또한 학급 배정은 누구의 희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에 관한 전화 설문을 하였다.

4. 資料 處理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처리하였다.

1) 각 문항을 조사 대상자의 변인에 따라 각 응답별로 백분율, 평균, t-test, 카이자승(χ^2)값을 산출하여 구체적 연구 목적에 따라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2) 통계 결과 처리에 대한 유의 수준은 $p < .05$, $p < .01$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3) 모든 통계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⁶³⁾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63) 류청산(2002). 「SPSS 11.0 for windows」 서울 : 엘리트. pp. 219-376.

IV. 研究 結果 및 解釋

1. 쌍둥이 兒童의 學級 配定 方式

1) 쌍둥이 아동의 학년에 따른 학급 배정 방식

<표 3> 쌍둥이 아동의 학년별 학급 배정 방식 (N = 384명)

학년	총응답자수	같은 학급	다른 학급	χ^2	p
1	44	28(64%)	16(36%)	39.01	<.01
2	52	24(46%)	28(54%)		
3	76	32(40%)	44(60%)		
저학년 소계	172	84(49%)	88(51%)		
4	68	14(21%)	54(79%)		
5	74	8(11%)	66(89%)		
6	70	18(26%)	52(74%)		
고학년 소계	212	40(19%)	172(81%)		
총계	384	124(32%)	260(68%)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68%가 다른 학급에 배정되고, 32%가 같은 학급에 배정되어 대체로 쌍둥이 아동이 다른 학급에 배정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저학년일 때에는 같은 학급에 49% 배정되고, 다른 학급에 51% 배정되어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고학년일 때에는 같은 학급에 19% 배정되고 다른 학급에 81% 배정되어 다른 학급에 배정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 vs. 81%). 그리고 학년과 쌍둥이의 학급 배정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39.01$, $p < .01$).

결론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로 다른 학급에 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쌍둥이 아동의 성별 학급배정 방식

<표 4> 쌍둥이 아동의 성별 학급 배정 방식 (N=260명)

성별	총 응답자 수	같은 학급 (%)	다른 학급 (%)	χ^2	p
남자	185	51(28%)	134(72%)	3.64	0.06
여자	199	73(37%)	126(63%)		
총계	384	124(32%)	260(68%)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쌍둥이 아동은 28%가 같은 학급에 배정되어 있고 72%가 다른 학급에 배정되어 있었으며 여자 쌍둥이 아동은 37%가 같은 학급에 배정되어 있고 63%가 다른 학급에 배정되어 있었다. 쌍둥이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학급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여자 쌍둥이 아동보다 남자 쌍둥이 아동일 경우 다른 학급에 배치되는 경향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쌍둥이의 성별과 학급 배치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chi^2 = 3.64$, $p = .06$).

3) 쌍둥이 아동의 난성별 학급배정 방식

<표 5> 쌍둥이 아동의 난성별 학급 배정 방식 (N=384명)

학년	같은 학급 (%)	다른 학급 (%)	총계	χ^2	p
일란성	63(30%)	142(70%)	205(100%)	0.85	0.36
이란성	63(35%)	116(65%)	179(100%)		
총계	126	258	384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란성은 30%가 같은 학급에 배치되고 70%가 다른 학급에 배치되었다. 이란성은 35%가 같은 학급에 배치되고 65%가 다른 학급에 배치되었다. 난성에 따른 학급 배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i^2 = 0.85$, $p = .36$).

2. 學級 配定에 대한 쌍둥이 兒童 및 學父母들의 滿足度

1) 현재 학급 배정에 대한 쌍둥이 아동의 만족도

<표 6> 학급 배정에 대한 쌍둥이 아동의 만족도 (N=384명)

학년	같은 학급			다른 학급			χ^2	p
	만족	불만족	무응답	만족	불만족	무응답		
저학년	53(63%)	30(36%)	1(1%)	58(66%)	27(31%)	3(3%)	6.36	.01
고학년	24(60%)	12(30%)	4(10%)	122(71%)	38(22%)	12(7%)		
총계	77(62%)	42(34%)	5(4%)	180(69%)	65(25%)	15(6%)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학년일 때에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의 만족도가 63%이고 고학년일 때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의 만족도는 60%로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에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저학년일 때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의 만족도가 66%이고 고학년일 때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의 만족도가 71%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의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에도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불만족보다 만족을 나타내었다.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으며 고학년이 되어서 다른 학급에 배정될 경우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chi^2 = 6.36$, $p = .01$).

2) 현재 학급 배정에 대한 쌍둥이 학부모들의 만족도

<표 7> 쌍둥이 학부모들의 만족도 (N=138명)

학년	같은 학급		다른 학급		χ^2	p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저학년	30(81%)	7(19%)	32(84%)	6(16%)	3.54	0.06
고학년	10(67%)	5(33%)	59(87%)	9(13%)		
총계	40(77%)	12(23%)	91(86%)	15(14%)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저학년일 때의 만족도가 81%이고 고학년일 때의 만족도는 67%로 저학년의 경우에 만족도가 높은 반면 고학년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저학년에 비해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았으나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저학년일 때의 만족도가 84%이고 고학년일 때의 만족도는 87%로 다른 학급에 배정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저학년과 고학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높았다.

저학년의 경우에 같은 학급이든 다른 학급이든 모두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81% 대 84%). 고학년의 경우에 같은 학급보다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에 만족감을 더 많이 나타냈다(67% 대 87%).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가까웠다($\chi^2 = 3.54$, $p = .06$).

3) 희망에 따라 학급 배정되었을 경우에 쌍둥이 부모의 만족도

<표 8> 희망에 따라 학급 배정되었을 경우에 쌍둥이 부모의 만족도 (N=134명)

구 분	같은 학급	다른 학급	총 계	χ^2	p
만 족	40(78%)	72(87%)	112	1.59	0.21
불만족	11(22%)	11(13%)	22		
총 계	51(100%)	83(100%)	134		

전체 아동의 85%가 희망에 따라 학급 배정을 받았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둥이 아동이나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급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같은 학급에 배정 받은 경우의 만족도가 78%이고 다른 학급에 배정 받았을 경우의 만족도는 87%로서 희망에 따라 배정 받았더라도 다른 학급에 배치되었을 때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59$, $p = .21$).

희망에 따라 학급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불만족도도 같은 학급에 배정 받았을 때 다소 높은 것(22% 대 1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급 배정의 만족 및 불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4) 강제로 학급 배정되었을 경우에 쌍둥이 부모의 만족도

<표 9> 강제로 학급 배정되었을 경우에 쌍둥이 부모의 만족도 (N=24명)

구 분	같은 학급	다른 학급	총 계	χ^2	p
만 족	0	1(20%)	1	3.97	<.05
불만족	19(100%)	4(80%)	23		
총 계	19(100%)	5(100%)	24		

쌍둥이 전체표본의 15%가 강제배정을 받아서 표본의 크기는 매우 작았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 배정이었을 경우는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100% 불만족,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80% 불만족으로 모두 높은 불만족을 나타낸 편이었는데,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불만족도가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5$).

5) 학급배정 희망 당사자 분포

<표 10> 학급배정 희망 당사자 분포 (N=160명)

희망자	N	%
부모	77	48
쌍둥이	38	24
교사	25	16
부모, 쌍둥이, 교사	10	6
부모와 쌍둥이	10	6
계	160	100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희망에 따라 학급 배정을 하였을 때에 부모의 희망을 따른 경우가 48%이고, 쌍둥이 아동의 희망을 따른 경우가 24%이고, 교사의 희망에 따른 경우가 16%이며 부모와 교사 쌍둥이 아동의 희망이 함께 고려된 경우가 6%이고, 부모와 쌍둥이 아동의 희망이 함께 고려된 경우가 6%로 나타났다.

희망에 따라 학급 배정을 할 때에 부모의 희망을 따른 경우가 48%로 학급 배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쌍둥이 아동의 의견이 24% 반영되었고 교사(학교)의 의견은 16%에 불과하여 학교나 교사들은 쌍둥이의 학급 배정에서 학부모와 아동에게 많이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에서 부모와 쌍둥이 아동, 교사의 희망이 함께 고려된 경우(12%)를 감안하면 쌍둥이의 학급 배정에 있어서 학부모가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쌍둥이 兒童의 學級配定과 生活 適應

1)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행복감과의 관계

<표 11>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행복감과의 관계(N=380명)

응 답	같은 학급	다른 학급	총 계	χ^2	p
예	96(77%)	195(76%)	291	0.07	0.79
아니오	28(23%)	61(24%)	89		
총계	124(100%)	256(100%)	380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둥이 아동들이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77%이고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76%로 나타났다. 즉, 쌍둥이들이 학급 배정에 따라서 느끼는 행복감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학급 배정과 쌍둥이 아동들이 느끼는 행복감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i^2 = 0.07$, $p = .79$).

2) 쌍둥이 아동의 학급배정과 협동심과의 관계

<표 12> 쌍둥이 아동의 학급배정과 협동심과의 관계(N=382명)

응 답	같은 학급	다른 학급	총 계	χ^2	p
예	77(63%)	157(60%)	234	0.26	0.61
아니오	45(37%)	103(40%)	148		
총계	122(100%)	260(100%)	382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둥이 아동들이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

을 때에는 63%의 아동이 협동심이 발휘되고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에는 60%의 아동이 협동심이 발휘된 것으로 나타나 쌍둥이 아동들이 대체로 학급 배정과 협동심과의 관계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chi^2 = 0.26$, $p = .61$).

3) 쌍둥이 아동의 학급배정과 경쟁심과의 관계

<표 13> 쌍둥이 아동의 학급배정과 경쟁심과의 관계 (N=382명)

응 답	같은 학급	다른 학급	총 계	χ^2	p
예	72(58%)	126(49%)	198	2.74	0.10
아니오	52(42%)	131(51%)	183		
총계	124(100%)	257(100%)	382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둥이 아동들이 같은 학급일 경우에 경쟁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58%이고 다른 학급일 경우에 경쟁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49%인 것으로 나타나서 쌍둥이 아동들이 같은 학급에 배정 받는 경우에 경쟁심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chi^2 = 2.74$, $p = .10$).

4)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의존심과의 관계

<표 14>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의존심과의 관계 (N=380명)

응 답	같은 학급	다른 학급	총 계	χ^2	p
예	38 (31%)	66 (26%)	104	1.29	0.26
아니오	84 (69%)	192 (74%)	276		
총계	122(100%)	258(100%)	380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둥이들이 서로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의존심이 생기는 경우는 31%로 나타났고 서로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에 의존심이 생기는 경우는 26%로 나타났다. 즉 쌍둥이 아동들이 서로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의존심이 약간 낮게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 유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chi^2 = 1.29$, $p = .26$).

5)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에 따른 교우관계

<표 15> 쌍둥이 아동의 학급배정에 따른 교우관계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값)

변인	분류	교우관계 척도 평균 (M)	교우관계 척도 표준편차 (SD)	t 값	p 값
학급 배정	같은 학급	3.42	.55	2.89**	< .01
	다른 학급	3.62	.69		

교우관계는 쌍둥이 형제 외에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가에 관해서 질문하는 2개 문항을 합쳐서 척도를 만들어 측정하였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둥이 아동들의 학급 배정에 따라서 교우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2.89$, $p < .01$). 즉 다른 학급에 배치되었을 때 쌍둥이 형제 외에 다른 친구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부모로부터의 비교

<표 16>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부모로부터의 비교 (N=374명)

응 답	같은 학급	다른 학급	총 계	χ^2	p
예	51(42%)	74(29%)	125	5.72	<.05
아니오	71(58%)	178(71%)	249		
총계	122(100%)	252(100%)	374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둥이 아동들이 서로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에 부모로부터 비교되는 경우는 42%이고 서로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부모들로부터 비교되는 경우는 29%로 나타났다. 쌍둥이 아동들이 서로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부모들로부터 비교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chi^2 = 5.72$, $p < .05$).

7)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교사로부터의 비교

<표 17>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교사로부터의 비교 (N=380명)

응 답	같은 학급	다른 학급	총 계	χ^2	p
예	32(26%)	64(25%)	96	0.09	0.77
아니오	90(74%)	194(75%)	284		
총계	122(100%)	258(100%)	380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둥이 아동들이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에 교사로부터의 비교되는 경우는 26%이고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에 교사로부터 비교되는 경우는 25%로 쌍둥이들은 같은 학급에 배정되든지 다른 학급에 배정되든지 교사로부터 비교의 대상이 된다

고 느끼지 않았다. 즉, 학급 배정과 교사로부터의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chi^2 = 2.74$, $p = .10$).

8)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친구로부터의 비교

<표18>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과 친구로부터의 비교 (N=383명)

응답	같은 학급	다른 학급	총계	χ^2	p
예	47(40%)	132(51%)	179	5.75	<.05
아니오	77(60%)	127(49%)	204		
총계	124(100%)	259(100%)	383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둥이 아동들의 학급 배정과 친구들로부터 비교된다고 느끼는 정도는 같은 학급에 배정 받았을 경우에 40%, 다른 학급에 배정 받았을 경우에 51%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이다. 친구들로부터 비교된다고 느끼는 정도는 같은 학급 보다 다른 학급에 배정 받았을 경우에 더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5.75$, $p < .05$).

9) 쌍둥이 아동들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

<표 19> 쌍둥이 아동들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N=379명)

응답	같은 학급	다른 학급	총계	χ^2	p
예(싫다)	202(79%)	99(80%)	301	0.13	0.72
아니오(괜찮다)	54(21%)	24(20%)	78		
총계	256(100%)	123(100%)	379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둥이들의 학급 배정과 다른 사람들로

부터 비교된다고 느끼는 정도는 설문조사 결과 학급 배정과 상관없이 쌍둥이 아동들의 79%가 타인들로부터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 싫다고 응답하였다. 학급 배정과 비교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은 없었다($\chi^2 = 0.13$, $p = .72$). 즉 쌍둥이 아동들은 같은 학급에 배정되든 다른 학급에 배정되든 쌍둥이 형제와 비교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쌍둥이 및 학부모들의 현재 학급 배정에 관한 의견과 쌍둥이들의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적응 상황에 관해 조사, 분석하여 학급 배정 정책이 쌍둥이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심리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화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t-test, 평균, 표준편차, χ^2 등을 산출하였다.

1. 要約

자료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쌍둥이 아동들의 학급배정 방식은 1학년 때를 제외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학급에 배정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는 점점 독립심이 증가하여 쌍둥이 형제 이외에 다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고 쌍둥이 상호 간에 경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낮아져서 다른 학급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자 쌍둥이 아동보다 남자 쌍둥이 아동일 경우 다른 반에 배치되는 경향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쌍둥이의 성별과 학급 배치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난성 또한 학급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일란성이라고 정서적 의존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쌍둥이 아동들과 부모들의 학급배정에 대한 만족도는 쌍둥이 아동들은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만족도가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고학년이 되어서 다른 학급에 배정될 경우에 만족도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급 혹은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모두 고학년 아동의 무응답자 수가 많은 것은 불만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쌍둥이 짝에 대한 미안함과 솔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갈등을 일으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배정된 학급에 만족한 정도는 저학년의 경우에 같은 반이든 다른 반이든 모두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고학년의 경우에 같은 반보다 다른 반에 배정되었을 때에 만족감을 더 많이 나타냈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가까웠다. 쌍둥이 아동이나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반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같은 반에 배정 받았든지 다른 반에 배정 받았든지 모두 만족하게 생각했다. 희망에 따라 반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다른 반에 배정 받은 경우에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학급 배정을 할 때에 부모의 희망을 따른 경우가 48%로 학급 배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음을 알 수 있다. 교사(학교)의 의견은 16%에 불과하여 학교나 교사들은 쌍둥이의 반 배정에서 학부모와 아동에게 많이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에서 부모와 쌍둥이 아동, 교사의 희망이 함께 고려된 경우(12%)를 감안하면 쌍둥이의 학급 배정에 있어서 학부모가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쌍둥이 아동들의 학급배정과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에서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는 쌍둥이들이 학급 배정에서 같은 학급이든 다른 학급이든 느끼는 행복감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쌍둥이 아동들이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든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든 쌍둥이 형제간에 협동심이 잘 발휘된 것으로 나타나 반 배정에 따른 협동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다른 반에 배치되었더라도 쌍둥이들은 서로 협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아동들이 같은 학급일 경우에 경쟁심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또 쌍둥이 아동들이 서로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의존심이 약간 높게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도 역시 통계적 유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쌍둥이 아동들의 학년, 난성, 성별에 따라서는 교우관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급 배정에 따라서는 교우관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다른 학급에 배치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쌍둥이 형제 외에 다른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아동들이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나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에 교사로부터 비교된다고 느낀 경우는 학급 배정과 상관없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쌍둥이 아동들이 서로 같은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에 부모로부터 비교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서로 다른 학급에 배정되었을 경우에 친구들로부터 비교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되는 것에 대한 반응은 학급 배정과 상관없이 쌍둥이 아동들의 79%가 타인들로부터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 싫다고 응답하였다.

2. 結論

쌍둥이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심리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급 배정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쌍둥이 및 학부모들의 현재 학급 배정에 관한 의견과 쌍둥이들의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적응상황에 관해 조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쌍둥이 아동들의 학급 배정은 성별 또는 난성과는 상관이 없고 학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쌍둥이 아동들과 학부모들이 학급을 희망대로 배정 받았을 경우 같은 반에 배정 받았든지 다른 반에 배정 받았든지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강제 배정을 받았을 경우라도 다른 반에 배정 받았을 때에는 대체로 만족하였다.

셋째, 쌍둥이 아동들의 학급 배정과 협동심과의 관계는 학급 배정과 상관없이 협동하는 경향이 높았고, 경쟁심과 의존심은 같은 학급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학급에 배정 받는 경우에 교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쌍둥이 아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된다는 것에 대하여 싫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쌍둥이 아동을 같은 학급에 배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학급에 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학급 배정 방법은 쌍둥이 아동의 희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부모의 의견과 교사의 의견 또한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쌍둥이 아동의 희망과 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학급 배정이 될 것이다.

3. 提言

쌍둥이 아동의 학급 배정을 할 때 같은 학급에 배정할 것인가 다른 학급에 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쌍둥이 아동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방법으로 배정하되 어떤 배정 원칙을 세워 놓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하나 하나의 경우마다 다르게 결정되어야 하고 엄격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이어져서 쌍둥이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생활을 하기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參考 文獻

1. 국내 문헌

권기욱(1996). 「학급경영론」, 서울 : 원미사.

남궁기운(2000). 「초등학교 학급편성과 담임교사 배정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남정걸(200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 교육과학사.

류청산(2002). 「SPSS 11.0 for windows」 서울 : 엘리트.

이소현, 박은혜(1998).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조용태(2001). 「특수아 상담」, 서울 : 양서원.

패트리셔 맬름스트롬 · 재닛 폴런드(2001). 공저 노순옥 옮김, 「쌍둥이
잘 기르기」, 서울 : 올림.

2. 외국 문헌

- Allport(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 ; MA: Addison-Wesley.
- Bailey & Winton(1987). 「Stability and change in parents' expectations about mainstreaming.」 ;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 Brady & McEvoy(1989). 「Social skills training as an integration strategy.」 Baltimore ;Brookes.
- Bricker(1978). 「A rationale for the integration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reschool children. In M. Guralnick (Ed), Early intervention and the integration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 Baltimore : University Park Press.
- Brown, L. , Long, E., Udvari-Solner, M., Davis, L., Van-Deventer, P., Ahlgren, C., Johnson, F., Gruenewalk, L., & Jorgensen, J.(1989). 「The home school; Why student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must attend the schools of their brothers, sisters, friends, and neighbor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 Bryan, T(1974). 「Peer popularity of learning disabled children」 ;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 Cartledge, Frew, & Zaharias(1985). 「Social skill needs of mainstreamed students; Peer and teacher perceptions.」 ;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 Collier, H. L.(1996). 「The Psychology of twins : A Practical Handbook for Parents of Multiples」 , The Business word : Eglewood E. Cresham, York, Vander-cook, MacDonald , Heisene-Neff, & Caughey, 1992.
- Donaldson & Martinson(1977), 「Modifying attitudes toward physically disabled persons.」 ; Exceptional Children.

- Esposito & Peach(1983). 「Changing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person.」 ; Exceptional Children.
- Falconer, D.S(1987). 「Introduction to quantitative genetics」 , London : Longman.
- Fiedler & Simpson(1987). 「Modifying the attitudes of nonhandicapped students toward handicapped peers.」 ; Exceptional Children.
- Fox(1989). 「Peer acceptance of learning disabled children in the regular classroom.」 ;Exceptional Children.
- Garret & Grump(1980). 「Peer acceptance, teacher preference, and self-appraisal of social status of learning disabled student s.」 ;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 Goldsmith, H. H.(1991). 「A zygosity questionnaire for young twins: a research note.」 :*Behavior Genetics*.
- Gresham, F. M. & Elliott, S. N.(1984). 「Social skills deficits as a primary learning disability.」 :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 Hay, D. A. & O'brien(1981). 「The interaction df family attitudes and cognitive abilities in the La Trobe Twin study of Behavioural and Biological Development」 , In L. Gedda, P. Parisi. & W. E. Nance (Eds), *Twins Research 3* New York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development.
- Helen Koch(1966). 「Twins and Twin Relations」 . University of Chicago : Chicago.
- Heron & Haris(1993). 「The educational consultant (3rd ed.)」 ,Austin; Tx : Pro-Ed.
- Hollinger, J. D.(1987). 「Social skills for behaviorally disordered children as preparation for mainstreaming: Theory, pratice and new directions.」 ;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 Jackson, Snieder, Davis, & Treiber, 「Determination of twin zygosity: A comparison of DNA with various questionnaire indices」 : *Twin Research*, 4, 1.
- Koch, H(1966). 「Twins and twin relations」 ,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 H. Collier(1996). 「The Psychology of Twins : A Practical Handbook for Parents of Multiples.」 : The Business Word - Englewood co.
- Lewis, R. B. & Doorlag, D. H.(1995). 「Teaching Special student in the mainstream.」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oehlin & Nichols(1976).
- Lyton, H(1995). 「Parent-child interaction」 , New York : Plenum.
- McIntosh, Vaughn, Zaragoza(1991). 「A review of social interventions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 Nordquist, Twardz, & McEvoy(1986). 「Some longitudinal effects of behavioral interventions on nonhandicapped children in two mainstreamed preschools.」 .
- Odom & McEvoy(1988). 「Integration of young children with handicaps. In S. L. Odom & M. B. Karnes (Eds), Early interven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with handicaps」 , Baltimore : Paul H. Brookes.
- Ooki, S., Yamada, K., & Asaka, A.(1991). 「Zygosity diagnosis of twins by questionnaire for twin's mothers.」 : *Shoni Hoken Keikyu*.
- Orlebeke, J. F. Knol, D. L. Koopmans, J. R. Boomsma, D.L. & Bleker, O. P.(1996). 「Left-handedness in twins : Genes or environment?」 : Cortex.
- Peck et al.(1989). 「Development of integrated preschool: A qualitative inquiry into sources of resistance among parents administrators, and teacher.」 ;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 Schlosser & Algozzine(1980)
- Segal, N. L.(2000). The Entwined Lives. Plume : New York, NY.
- Slate & Saudragas(1986)
- Segal & Russell(1992). 「Twins in the Classroom: School Policy Issue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Stoneman(1993). 「The effects of attitude on preschool integration.」.

Tumbull, A. P., & Schulz, J. B.(1979). 「Mainstreaming Handicapped students」, Boston : Ally & Bacon.

Wilson, R. S.(1983). : The Louisville Twin Study. 「Child Development」.

附錄

< 부록 1 >

쌍둥이의 생활 적응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쌍둥이 형제(자매, 남매)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 생활, 친구관계 등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반에서 지내는 것과 다른 반에서 지내는 것 중 어느 쪽이 여러분들의 이성발달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해서 연구하여 반 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 내용은 숫자나 문자로 처리되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 7.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손영계 드림

기초자료

<1> 이름 : _____ (2) 성별(남, 여)

<3> 학교 : _____ 학년: _____

<4> 쌍둥이와의 관계 : _____ <5> 집전화 : _____

* 다음은 쌍둥이 여러분의 친구관계, 학교 및 가정생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알맞은 답 하나를 골라 O표 해 주십시오.

1. 우리 쌍둥이 형제들은 각각 다른 반에 있다.
1) 예_____ 2) 아니오_____
2. 나와 내 쌍둥이 형제가 각각 다른 반에 있을 때만 대답하세요.
1) 같은 반이었으면 좋겠다._____
2) 그냥 이대로 각자 다른 반에 있는 것이 좋다._____
3. 나와 내 쌍둥이 형제가 같은 반에 있을 때만 대답하세요.
1) 각각 다른 반이었으면 좋겠다._____
2) 같은 반이었으면 좋겠다._____
4. 나는 쌍둥이라는 사실이 행복하다.
1) 예_____ 2) 아니오_____
5. 나는 나의 쌍둥이 형제 외에는 별로 친한 친구가 없다.
1) 예_____ 2) 아니오_____
6. 우리 쌍둥이 형제는 각각 서로 다른 친구들과 친한 편이다.
1) 예_____ 2) 아니오_____

7. 나와 내 쌍둥이 형제는 숙제나 집안일, 심부름 등을 할 때 서로 도와준다.
1) 예____ 2) 아니오____
8. 나와 내 쌍둥이 형제는 숙제나 집안일 그 밖의 일들을 할 때 서로 경쟁하는 편이다.
1) 예____ 2) 아니오____
9.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쌍둥이 형제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편이다.
1) 예____ 2) 아니오____
10. 나와 내 쌍둥이 형제와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에 0표하세요.
1) 가장 친한 친구보다 더 친하다.____
2) 우리 반의 보통 친구들보다는 친한 편이다.____
3) 우리 반의 보통 친구들 같다.____
4) 전혀 친하지 않아서 남 같다.____
11. 나는 내 쌍둥이 형제와 거의 항상 같이 놀고, 일하며 대부분 함께 시간을 보낸다.
1) 예____ 2) 아니오____
12. 우리 부모님은 나와 내 쌍둥이 형제를 자주 비교하신다.
1) 예____ 2) 아니오____
13. 선생님들은 나와 내 쌍둥이 형제를 자주 비교하신다.
1) 예____ 2) 아니오____
14. 친구들은 나와 내 쌍둥이 형제를 자주 비교한다.
1) 예____ 2) 아니오____
15. 나는 선생님,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이 나와 내 쌍둥이 형제를 비교하는 것이 싫다.
1) 예____ 2) 아니오____

<끝>

< 부록 2 >

난성검사지(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재학중인 손영계입니다.

쌍둥이형제(자매,남매)들의 학교와 가정 등에서의 생활 적응과 상호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여 「쌍둥이의 학급 배정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얻고자 하오니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 내용은 숫자나 문자로 처리되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 7.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손영계 드림

쌍둥이 자녀 이름 : _____ , _____ ,
(_____)초등학교, (____)학년

* 다음 문항들은 당신의 쌍둥이 자녀가 일란성 쌍둥이인가 이란성 쌍둥이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맞은 것에 O표해 주십시오.

(반드시 부모님 중의 한 분이 응답해 주십시오).

1. 당신의 쌍둥이 자녀가 일란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란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확실히 일란성이다____ 2)잘 모르겠다____ 3)확실히 이란성이다.____
2. 당신의 쌍둥이 자녀들은 외모가 마치 복사판처럼 꼭 닮았습니까?
1) 복사판처럼 닮았다.____ 2)보통 형제들 정도로 닮았다.____
3)전혀 닮지 않았다.____
3. 당신의 쌍둥이 자녀들은 성장해오는 동안 그 유사성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왔습니까?
1) 그대로 유지해왔다.____ 2) 약간 달라졌다.____ 3) 매우 달라졌다.____

4. 염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쌍둥이 자녀들의 머리카락 결이 어느 정도 닮았습니까?
- 1) 똑같다.____ 2) 약간 다르다.____ 3) 매우 다르다.____
5. 염색이나 퍼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쌍둥이 자녀들의 머리카락 형태 (예: 곱슬머리, 적모 등)는 어느 정도 닮았습니까?
- 1) 똑같다.____ 2) 약간 다르다.____ 3) 매우 다르다.____
6. 새로 찍은 사진을 볼 때 당신의 쌍둥이 자녀들이 누가 누구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 1)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____ 2) 구별하기 약간 어렵다.____
3) 구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____
7. 당신의 쌍둥이 자녀들은 친구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까?
- 1) 자주 그렇다.____ 2) 가끔 그렇다.____ 3) 거의 그런 적이 없다.____
8. 당신의 쌍둥이 자녀들은 낯선 사람들, 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까?
- 1) 자주 그렇다.____ 2) 가끔 그렇다.____ 3) 거의 그런 적이 없다.____

* 감사합니다.

< 부록 3 >

쌍둥이의 학급 배정 및 학부모의 만족도 검사 전화 설문

1) 귀댁의 쌍둥이 자녀가 현재 같은 반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 예____ ㉡ 아니오____

2) 현재의 반 배정에 만족하십니까?

㉠ 예____ ㉡ 아니오____

3) 현재의 반 배정은 희망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 예____ ㉡ 아니오____

4) 현재의 반 배정은 주로 누구의 희망(의견)을 따른 것입니까?

㉠ 쌍둥이 아동____ ㉡ 부모____ ㉢ 학교(교사)____

감사합니다.

끝.

Abstract

The main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are to survey the current classroom assignment of the twin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s, investigate whether parents a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classroom assignment of their twin children, and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wi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whether the twins are assigned in the same classroom or not. Three hundred and eighty-four twin children completed a questionnaire that includes questions on whether they are in the same classroom or not, their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hether they are compared to each other by their peers, parents and teachers or not, etc. One hundred and sixty-one parents of the twins completed a zygosity questionnaire and telephone interview with regard to satisfaction regarding school policies, whether they support or reject separate classrooms for twins and related issues. Data analyses yielded three main finding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whether the twins are in the same classroom or not and twins zygosity or sex. However, grad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lassroom assignment. That is, with grade, twins tended to be in the separate classrooms. Second, both parents and their twin children tended to be satisfied with their twin children current classroom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in the same classroom or not. Finally, twins in the separate classroom had a better peer network and tended to be less compared by their parents. Implications of the present findings in the school policy were discussed.